2. 育苗日數에 따른 出穗促進은 25日苗보다 35日苗에서 不過 1~2日 빨랐으나 移秧時期間에는 6月20日 移秧보다 6月10日 移秧에서 3~10日 促進되어 移秧時期를 앞당기는 것이 育苗日數를 延長시키는 것보다 出穗促進效果가 크게 認定되었다.

3. 安全出穗期로 본 中北部 平野地의 機械移秧栽培 晩植可能品種은 多收系는 太白벼, 白羊벼, 加卿벼 等이 6月10日까지 移秧이 可能하였으며 一般系品種은 小白벼, 雉岳벼, 農白, 道峰벼, 福光벼 等이 6月20日까지 移秧이 可能하였으며 三南벼, 大倉벼는 6月10日까지는 安全移秧이 可能하였다. 한편 收量性을 감안할 때는 新光벼, 三剛벼, 畿湖벼, 常豊벼, 洛東벼 等도 6月10日 移秧에서 相當한 收量性을 보였으나 冷害年에는 收量減少가 크게 豫想되어 安定性이 희박하였음.

7. 벼 품종들의 등숙별 수발아성의 차이

작물시험장 : 노영덕*, 이동진, 박석홍, 박래경

이앙시기가 다른 시험에서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에 이른 다수계 6품종과 일반계 9품종에 대하여 수발아 특성의 차이를 치상방법, 치상온도, 치상시기 등을 달리하여 시험하였던 바

1. 수발아성은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로 등숙이 진전됨에 따라 컸으며 수확후 일수가 진전됨에 따라서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2. 샤레치상이나 이삭 전체를 수직 또는 수평치상 하였을 경우에 발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수발아성의 처리간 차이는 주로 휴면성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보였는데, 휴면성의 발현은 고온에 비

하여 저온에서 크게 나타났다.

3. 일반계에 비하여 다수계 품종들이 일반적으로 수발아성이 낮았는데, 일반계 중에서 수발아성이 비교적 낮은 품종은 오대벼, 복광벼 등이 있고, 다수계중 수발아성이 높은 품종은 태백벼 였다.

8. 水溫의 變異에 따른 벼 品種의 冷害類型
- 特히 稔實 및 收量反應 -

作物試驗場 : 芮鍾斗, 柳昌燦, 趙守衍, 朴來敬

分蘖期에서 登熟期까지 水溫 17 ℃의 冷水處理를 계속 實施하여 水口 (17 ℃) 에서 排水口 (24 ± 2 ℃) 까지 每 水溫地點別로 稔實率과 正租收量을 排水口 對比 調査하였던 바 結果를 要約하면

1. 品種의 稔實에 對한 限界溫度는 品種間 큰 差異를 나타내었는데 그 溫度範圍는 17 ℃ 以下에서 24 ℃ 以上으로서 各 水溫 地點別 品種의 稔性反應이 多樣하였다.

2. 各 水溫地點別 稔實程度에 따라 品種의 冷害類型을 大別하면 i) 低溫 (17 ℃) 에서도 稔實障害가 극히 적은 型, ii) 水溫의 變化에 稔實反應이 敏感한 型, iii) 低溫에서 稔實이 높고 高溫에서 낮은 型 等 6型으로 分類할 수 있었다.

3. 水溫이 높아짐에 따라 稔實率과 收量은 점차 높아지는 傾向이나 稔實率이 收量을 絶對的으로 左右하지는 못하였다.

4. 冷水處理에서 稔實率과 收量性이 높은 品種으로는 Ta-San-Bir-Co, IR 9202, K 143 等으로 水溫變化에 鈍感하였다.